

제국데이터뱅크(TDB), 일본 ‘수출기업’ 실태조사 결과 발표

TDB에 따르면 일본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관련된 업체는 33,000여사로, 이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60%(19,500여사)인 것으로 파악. 이들 중소기업 수출기업은 동일본대지진, 원전사고 및 엔고지속에 따라 대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

- 2011년 7월 말 현재 일본의 ‘수출기업’은 33,083사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14,799사, 44.7%)과 도매업(14,355사, 43.4%)이 전체의 90%를 차지
 - * 제국데이터뱅크(TDB)는 자사의 기업데이터베이스(139만 업체)를 바탕으로 직간접으로 수출과 관련 있는 업체를 파악하여, 이번에 최초로 ‘수출기업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
 - 상기 두 업종 모두에서 ‘일반기계’ (5,965사), ‘전기기계’ (3,873사), ‘수송용기계(자동차 포함, 1,854사)’ 관련 기업이 상위를 차지
 - 연간 매출규모별로는 ‘10억 엔 미만’의 중소기업이 19,494사로, 전체의 58.9%를 차지
 - 이 중 실적이 발표된 기업의 28.6%(3,211사)가 최근 결산에서 적자 상태로 나타나, 상당수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.
 - 지역별로는 간토(關東) 16,094사(48.6%), 긴키(近畿) 8,079사(24.4%), 추부(中部) 4,214사(12.7%)의 순으로 나타남.

- 또한 ‘수입기업’은 71,402사로, 업종별로는 도매업(35,544사, 49.8%)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제조업(16,980사, 23.8%)이 그 뒤를 이음.
- 연간 매출규모별로는 ‘10억 엔 미만’의 중소기업이 49,078사로, 전체의 68.7%를 차지
 - 이 중 실적이 발표된 기업의 20% 이상이 최근 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났음.
- 지역별로는 ‘수출기업’과 마찬가지로 간토(關東) 33,594사(47.0%), 긴키(近畿) 15,799사(22.1%),中部(中部) 8,724사(12.2%)의 순으로 나타남.
- 311 동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뿐만 아니라 최근의 급격한 엔고에 따라 일본 대기업을 제외하면 가속화될 경우, 중소하청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TDB에 따르면, 엔고 관련 기업도산은 1~8월 현재 29건으로 이미 전년 수준을 상회

<참고자료>

TDB(2011.8.15), 「特別企画: '輸出企業'の実態調査 - 輸出企業は国内に3万3000社, うち6割が中小企業」.